

# ‘수주·분양 부진’ 건설사 실적 ‘울상’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사업과 해외수주 부진 등으로 올해 1분기 저조한 실적을 겨우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1일 대형 건설사들이 잠정 공시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주요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매출 7조3570억원, 영업이익 1050억원, 당기순이익 22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 줄어들었는데 그쳤으나 영업이익은 -49.7%로 반토막 났고, 당기순이익도 40.8% 급감했다.

매출은 건설부문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준공과 상사부문의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해외건설사업 중재 결과에 따른 일회성 비용으로 대폭 줄었다.

현대건설은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며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6% 증가한 3조9777억원, 당기순이익은 11.3% 늘어난 156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59억원

으로 6.1% 감소했다.

매출은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시우디 우쓰마니아 에탄 회수 처리 시설공사 등 해외 대형공사 공정이 본격화되고 국내 주택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 커졌다. 당기순이익 증가는 활동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등이 주효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던 GS건설은 수익이 반토막 났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91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1% 급감했고 매출은 2조 6020억원으로 16.8% 줄었다. 신규 수주는 1조3750억원으로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1분기 1800억원의 일회성 환입금 반영 기저효과와 올해 1분기 700억원 규모의 직원 성과급 등이 실제 부진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매출에 크게 기여했던 아랍에미리트 RRW 회제복구 현장 사업이 마무리된 영향도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부진 속에 영업이익률이 5%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 모로코 발전소 현장 우발 손실로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래 최근 1년 새

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 영업이익 반토막

현대건설 ‘양호’…삼성ENG, 실적 대폭 개선

“시장 기대치 양호한 성적…불확실성은 여전”

기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4% 줄어든 2조309억원, 영업이익은 45.9% 감소한 985억원, 당기순이익은 55.7% 급감한 494억원에 그쳤다. 수주잔고는 32조103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 29조8589억원 대비 7.2% 증가하며 30조원 선을 회복했다.

대림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1% 감소한 2조3220억원, 영업이익은 3.0% 줄어든 2409억원, 당기순이익은 5.6% 하락한 2364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대형 사업이 일부 미무리되면서 매출이 줄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8.8%에서 올해 1분기 10.4%로 1.6%포인트 상승하며 수익성이 다소 나이졌다.

지난해 5518억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두산건설은 올해 1분기 매출 3481억원, 영업이익 7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 0.38%와 50.6% 줄어든 수치다. 다만 회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 178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3.9% 증가한 249억원,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한 54억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두산건설은 회망퇴직 실시로 올해 12월까지 220억여원, 내년부터 연간 300억원의 비용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4200억원의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자본 확충 및 차입금 감축으로 부채비율은 200%대로 낮아지고 이자비용도

연간 25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4% 감소한 116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16.6% 감소한 2631억원, 당기순이익은 63.6% 급감한 49억원이다.

반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전년 동기 대비 40.3% 대폭 증가한 119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은 1조3518억원으로 11.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778.3% 늘어난 104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무리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이익이 개선과 현안 프로젝트 미무리로 화공부문이 안정된 영향이 커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최근 해외수주 부진과 주택분양 감소로 건설업종에 대한 우려가 커다”며 “그러나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도 과거와 달리 실적 불확실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사업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매출 증가로 수익성이 향상되거나 해외부문 손실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안정되고 있다”며 “만약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동 발주 감소, 국내 주택시장 우려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AE타워 쏘카 본사 앞에서 열린 타다 서비스 종단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동 서비스, 갈길 잊은 혁신

택시 “박살내자” VS 타다 “협의점 찾자”

한 갈등 속에서도 사용자들의 수요에 발맞춘 새로운 이동 서비스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 있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관계자 30여명은 지난달 30일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연 가운데 타다는 “경쟁 구도가 아닌 신규 플랫폼을 활용해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면서 이동 서비스 혁신은 오리무중 상태에 빠졌다.

1일 타다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서울 성동에 있는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쏘카·타다는 물려가라”라고 쓰인 팻말과 함께 서비스 종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개인택시를 포함해 택시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 잘 되는 것이고 쏘카와 타다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 서비스 시장 자체를 키워서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어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타다는 관계자는 “웨이고와 미카롱 택시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택시기사들을 중에서도 플랫폼 안에서 같이 혁신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택시를 몰아 타다 드라이버로 지원하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새로운 혁신을 바라는 택시기사들이 있지만 기존 서비스에 익숙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으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는 기사들도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마냥 대결 구도로만 그려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이 있을 때 기존 산업에 있던 사람들의 100% 등의 아래 전환이 이루어진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의 첨

뉴스

## 5G가입자수 26만명·기지국 5만4202개…“민원 감소 중”

### 일주일새 기지국 7% 증가…5G 표시 개선키로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의 5G 가입자는 26만명,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 수는 5만420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참여하는 5G 서비스 접경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5G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5G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등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G 기지국은 지난달 29일 기준 5만4202개(장치수 11만7001대)가 구축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5만512개(장치수 11만7514대) 보다 3690개 증가(7%)한 수치다.

5G 가입자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약 26만명으로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되고 있는 5G 관련 불편 사항

민원은 초기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은 다양한 이용 상황에서 이용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지국, 장비 등의 최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통 3사와 제조사들은 인근에 5G 기지국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LTE만 이용하고 있어도 휴대폰 상태표시줄 상에는 5G로 표시되는 현상을 개선키로 하고, 이달 중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5G 서비스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서비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인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제대로 안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동통신 3사에 충실히 현장 교육을 당부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